

대행 스님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질문자1(남) 저는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도 엉망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도 없이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랏일이 걱정되십니까? 올해 특별히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근본이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죽거리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남한테 유난히 저주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은 이 우주 대천세계에뿐만 아니라 지구 하나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하신다면 우주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 이끌고 결정을 해서 지구의 심부름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시면서 느끼는 대로 깊이 안으로 하십시오.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국민이 편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말입니다.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해 나온 걸 보면 현재에 그 도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깊은 속에서 내십시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2(남) 스님, 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이거든요. 셋째 주 법회를 들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셋째 주 법회 들으려고 올라오려고 생각



그림 · 최주현

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3 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혜룡 스님께서 '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시험도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과로 생각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마음 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섰습니다. 마음 내 주십시오.

큰스님 마음을 제 삼자에게 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 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어.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탓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삶도 악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한 탓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라' 하고 일러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 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쟁여져서 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요.

찰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천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이 있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